

빛그린국가산단, 자동차산업 전진기지 도약 '날개'

자율주행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 세계 혜택에 각종 규제 완화...모빌리티 기업 등 투자 유치 탄력

빛그린국가산단단지 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진 기지로 거듭난다. 빛그린산단은 자율주행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된 바 있는데, 지난 6일에는 정부가 빛그린산단을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세계 혜택과 각종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기업이 늘어날 것을 전망된다.

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신규 기회발전특구로 광주시 빛그린국가산단(68만6797㎡·20만7000평)을 지정하고 '모빌리티 특구'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모빌리티 특구에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전장 부품·이차전지 등 미래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게 된다.

빛그린산단은 현재 다수의 모빌리티 기업들이 입주해있어 이번 특구 지정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빛그린산단은 자동차 범퍼부터, 전기차 엔진모듈, 전자장비, 타이어까지 자동차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이 전부 생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자동차산업 외에도 이차전지 설비 등 최신 모빌리티 연관 산업도 입주해, 생산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전국 최초 상생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캐스퍼와 기아 차량의 탑재되는 범퍼 생산기업인 ㈜캠스도 가동 중이다.

또 자동차 오디오, 네비게이션 등 전장제품을 생산하는 ㈜디에이치오트웨어도 가동률을 높이면서 생산량을 올리고 있다. 특히 ㈜디에이치오트웨어는 평택공장의 빛그린산단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추후 더욱 많은 생산량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캐스퍼 EV 엔진모듈을 생산하는 ㈜자여, 타이어 생산업체인 ㈜대호산업, 동진기업㈜,



광주 빛그린국가산단단지 전경.

(주)금명하이텍 등 이차전지 설비분야도 집적화가 진행되면서 빛그린국가산단단지가 자동차 산업 전진 기지로 성장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빛그린산단을 필두로 광주·전남을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차 생산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확대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빛그린국가산업단지과 인접한 광주 광산구 일원에 약 338만㎡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와 빛그린산단, 진곡산단을 '자율주행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로써 '미래차 3각 벨트'가 완성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금호타이어와 입주계약을 맺고 광주공장을 빛그린산단에 유치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약 50만㎡ 규모의 부지에 친환경 타이어 생산 공장을 건설,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황상현 산단공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은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금호타이어의 빛그린국가산단단지 입주계약이 지역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빛그린국가산단단지가 우리지역의 자동차 및 미래차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 거래 증가...기준금리 인하 영향

매수·매도대금 전월비 크게 늘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액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동발 리스크 등 국제 경제 악화로 인해 주식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난 10월 11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주식 거래량이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은 5조4314억원으로, 전월(4조9663억원) 대비

9.3% 증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매수, 매도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1조7621억원으로 전월 1조6246억원 대비 1375억원(8.4%) 올랐고, 매도거래대금은 1조5415억원에서 1조6452억원으로 1037억원(6.7%) 상승했다.

코스닥 역시 매수거래대금은 1조174억원으로 11.9% 올랐고, 매도거래대금은 12.9% 오른 1조6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주식은 대장주 '삼성전자'였다. '광주·전남 거래대금

상위종목'을 보면 지역 투자자들은 지난달 삼성전자 주식을 2675억7380만원 매수, 1885억3373만원 매도했다.

이어 코스피에서는 여전히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주 강세가 이어졌다.

코스닥 역시 의료·제약주 강세가 지속됐다. 거래 상위 종목으로는 펩트론(매수 494억원·매도 479억원)이 가장 거래량이 많았고, 리가컴바이오(매수 359억원·매도 373억원), HLB(매수 267억원·매도 275억원) 순이었다. 이 밖에도 삼천당제약,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등의 거래량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신세계 아동복 편집숍 '프리미엄 아우터 팝업' 행사

광주신세계가 오는 24일까지 본관 6층 프리미엄 아동복 편집숍인 '리틀 그라운드'에서 '프리미엄 아우터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 참여 브랜드는 '에르노 키즈', '일구포', 'AI 라이더스' 등이다.

이번 팝업 매장에서는 광주신세계 리틀 그라운드의 인기 브랜드 제품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으며, 70만원 이상 구매고객들을 대상으로 곰인형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증정 프로모션은 한정 수량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우선 이탈리아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에르노 키즈'는 가벼운 무게와 착용감으로 높은 활동성을 지닌 제품들을 선보인다. 대표 제품으로는 '에르노 키즈 글리터 구스다운(104만원)'이 있다.

이탈리아 레이블 브랜드 '일구포'에서는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한 '일구포 블루 퍼 카라코트(69만8000원)'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미국 브랜드인 'AI 라이더스'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인기가 높다. 대표 제품으로는 'AI라이더스 핑크 다운 점퍼(66만8000원)'를 선보인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옷을 선물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이번 팝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 '순천 어린이마을' 지하수 관정 착공

어린이보호시설 물 부족 해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은 7일 "순천 SOS 어린이마을"을 찾아 지하수 관정 공사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사회복지법인(어린이보호시설)인 순천SOS어린이마을은 설립 이후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해왔는데, 지난해부터 수량이 부족해 매일 단수 조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올해 초 순천 신대지구에 개소된 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은 지난 7월에 첫 번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순천SOS어린이마을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올 추석 10개 협력 시공사와 함께 두 번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린이마을이 겪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와 10개 협력 시공사는 지하수 관정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을 모금해 어린이마을에 전달하고 착공식을 가졌다. 완공된 관정에 붙여진 현판인 '물사랑 샘물'은 물 부족 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은 "모든 국민의 불복직 실현을 추구하는 K-water는 사



회공헌활동을 통해서도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은 건설파트너들과

함께하여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크리스마스 식기 할인 판매 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빌레로이앤보호 매장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및 연말 장식과 함께 다양한 식기들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연말 분위기로 꾸며진 집시, 머그, 티팟 등 다양한 소품들을 12월 말까지 품목별로 30~40%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빨리Wa요 산타' 이벤트

'온가족안심예금' 고객 경품

광주은행은 7일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온가족안심예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빨리Wa요 산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온가족안심예금' 상품에 가입한 뒤, 광주 Wa뱅크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별도 응모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온가족안심예금에 가입했던 고객들도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게 '더벤티 커피 아메리카노 1잔'을 제공한다. 이벤트 종료 후에는 전체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농협안심한우 1+ 프리미엄 한우 구이 세트 1.2kg(10명) ▲농협안심한돈 선볼세트 1kg(10명) ▲한삼인 홍삼정 스틱 액티브 10ml·32포

(10명)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30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광주 Wa뱅크 앱,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온가족안심예금 가입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대비하고, 예금 이자와 대체로운 경품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출시된 '온가족안심예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한다.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 구간별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연 2.3%,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연 3.15%, 3000만원 이상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진흥원, 메타버스 체험교육

16·23일 초등학교 자녀 가족 대상

(재)전남정보문화진흥원이 오는 16일과 23일 오후 2시에 도내 초등학교(전 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체험교육'을 개최한다. 순천에 위치한 전남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메타버스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 10팀으로 각 회차당 20명 이내로 한 팀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전남 지역 외 거주민은 체험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로블록스 플랫폼을 활용해 나만의 월드를 만드는 프로그램과 메타버스 앱인 디토랜드 체험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11월 11일까지 가능하며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구글폼(https://forms.gle/kTLU7HBPx6MZSoix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11월 12일 개별 문자 안내가 발송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4.63 (+1.12)
↓ 코스닥	733.52 (-9.79)
↓ 금리(국고채 3년)	2.922 (-0.038)
↓ 환율(USD)	1393.90 (-2.30)